

가사노동의 사회학 다룬 책는다

주부들 삶의 진정한 자리매김 모색

얼마전 한 여자 텔런트가 광고에서 내뱉은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라는 말이 크게 유행한 적이 있었다. 얼핏 들으면 여자의 능력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들리는 이 말은, 실상은 남편의 관심 외에는 달리 자신의 정체감을 확인할 길 없는 우리나라 주부들의 일반적인 상황과, 집안일에 대한 남편의 관심이 그의 온전한 책임이나 의무라기보다는 기분에 따라 할 수도 안할 수도 있는 것이라는 우리사회의 통념을 드러내는 데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

그러나 최근 주부들의 삶의 진정한 자리매김에 대한 모색이 사회 일각에서 활발하게 일면서 이에 관련된 서적에도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같은 관심은 주부들의 몫으로 맡겨진 ‘살림’이 어떤 것을 살뜰히 가꾸어나가는 일인 동시에 정체되거나 죽어 있는 것을 살린다는 의미를 포괄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또한 ‘집안살림’ 나아가 ‘사회살림’ 활동으로서의 주부운동이 현재 소비·교육·환경 뿐만 아니라 노동·농민·빈민 등 기층의 문제까지 그 관심을 확대시켜 나가고 있어, 사회운동의 한 부문으로서의 중요성이 인식되기에 이르렀고 그 대중적 확산을 위한 서적의 필요성이 운동주체측과 출판계 양측에서 함께 제기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주로 진보적인 입장을 표방하는 사회과학

출판사나 여성문제를 전문으로 기획·발간하는 출판사, 또는 여성문제 연구모임 등에서 주부문제를 개별영역으로 취급하면서 선보이게 된 이들 주부관련 서적들은, 과거에 그것이 주로 학문적인 이론서나 외국 원전의 번역에 그쳤던 데 비해 점차 우리나라 주부들의 실상과 체험을 다양하고 쉬운 접근방법을 통해 들려주고 있다는 특성을 지닌다.

현재 서점에 나와 있는 이러한 책들 중에 우선 주목되는 것은 자각한 여성들의 수기로 일상적인 삶을 살던 여성들이 어떻게 가족이 기주의에서 벗어나 사회운동에 기여하게 되는가를 솔직하게 그리고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분신 노동자인 전태일의 어머니이며 청계피복노조의 代母로 불리우는 이소선여사가 구술한 것을 민중떡씨가 정리한 「어머니의 길」(돌베개)과, 분신열사, 장기수, 구속학생·노동자·교사의 가족들로 이루어진 ‘민주화실천가족협의회’ 회원들의 체험기 「오, 어머니 당신의 눈물은」(동녘) 등이 있다.

다음으로 들 수 있는 것이 소모임 활동 및 각 부분별 운동사례를 모은 책.

일본 생활클럽 생협의 활동사례를 모은 「부엌에서 세계가 보인다」(佐藤慶章/유보경, 숲과 흙)는 가족의 식탁과 건강한 삶을 위해 소비재의 생산 및 유통과정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선 주부들의 활동을 생동감 있게 그리고 있

다. 전국여성농민회가 펴낸 「여성농민, 위대한 어머니」(형성사)는 농촌현장의 한 소그룹의 학습프로그램. 집안문제로부터 농촌의 구조적인 문제까지를 함께 생각해볼 수 있게 했다.

주부들이 사회활동을 하면서 겪는 가장 큰 애로인 육아의 문제를 다룬 책도 있다.

「여성취업과 타아운동」(등에)이 그 대표적인 책으로 우리나라 경제구조와 관련된 여성취업문제 일반에 대한 분석으로부터 출발하여 올바른 타아운동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밖에 주부들이 실제 생활에서 체험하고 있는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산문집도 눈에 띈다.

‘여성의 전회’ 공동대표인 손덕수 교수의 「수레를 미는 여성들」, 민중문학작가회의 여성분과 소속 작가들의 산문모음인 「울타리를 넘어서」 「내가 알을 깨고 나온다면」(공동체) 등이 있다. 「오늘의 아내, 어머니 그리고 여성」(박노열, 형설)은 여성문제를 조명하는 남성의 새로운 시각을 보여주고 있어 관심을 끈다.

한편 주부들이 직접 필자가 되어 안으로만 감추어두었던 자신들의 삶을 펼쳐 보이며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의도로 씌어진 책들도 있다.

여성문제 전문 무크지를 내고 있는 ‘또 하나의 문화’에서 펴낸 「주부, 그 막힘과 트임」과, 깨침을 위해 애쓰는 스물일곱 주부들의 이

야기를 담은 「또 하나의 입덧」(뜨님) 등이 여기에 속한다.

현재 서점에 선보이고 있는 이들 주부관련 서적들은 그동안 등한시 되어왔던 주부문제에 대한 최근의 관심을 대변하는 동시에, 아직은 출발단계에 있는 우리나라 주부운동의 수준과 맞물려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이다.

김성희씨(한국 여성민우회 주부분과 간사)는 “주부문제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견지하면서도 대중성을 갖춘 책들이 많지 않다”고 전체하고 “좋은 책이 나오면 급속도의 파급효과를 보이는 것이 주부들의 독서경향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출판사들의 보다 다양하고 과감한 기획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여성문제 관련서적 출판에 꾸준한 관심을 보여왔던 한 출판사의 편집장은 “우리나라 주부들의 독서율이 저조하고 또 선호하는 책 역시 감상적인 수필이나 흥미위주의 소설 등에 머무르고 있어 주부를 겨냥한 책을 기획, 출판하는 데는 상당한 용기가 필요하다. 주부문제를 다룬 서적 출판이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주부들의 문제의식이 높아지는 한편 이에 부응할 만한 역량을 갖춘 필자의 개발도 시급하다. 학계 또는 주부운동 주체측의 출판매체의 대한 보다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박남정 기자

문둥이 성자 다미안

“데미안 말고 다미안 주세요”

책방 할아버지의 실수 때문에 한 여고생이 밤새 울게 된 사연 하교길에 국어 선생님의 독후감 독촉을 떠올린 그 여고생은 황급히 골목 어귀의 책방으로 뛰어 들었습니다. “데미안 주세요.” 양서 목록에 으레 끼는 헛세의 유명한 소설. 아들 내외 대신 책방을 보던 할아버지는 잘 모르고 새로 나온 무슨 무슨 다미안이라는 책을 싸 주었습니다. 집에 와서 잘못한 것을 알게 된 그녀는 저녁을 먹고 바꾸기로 하고 처음 몇 페이지를 읽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저녁을 걸르게 되었고 밤을 새우게 되었으며, 자기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데미안이 아닌 다미안에 대한 독후감을 써 내게 되었습니다.

“...가장 위대한 힌신! 홀로 문둥병자들이 격리

된 섬에 들어가 그들과 고통을 함께하고 끝내 스스로도 문둥병자가 되어 삶을 마친 이 벨기에 태생의 다미안 신부님은, 서로 빼앗고 죽이고 강간하는 이 험악한 시대, 거짓 감동이 대량으로 조작되는 이 시대에 참된 이타적 삶의 극치를 보여 준다. 세상이 내뿜고 있는 온갖 이기적 악덕과 추악한 상쟁의 악취에 비하면, 다미안 신부님이 문둥병자가 되어 흘리셨을 피고름은 차라리 순결한 것이다...”

지정해 준 데미안이 아니라 다미안에 대한 독후감이었지만, 선생님은 흐뭇하게 읽었습니다. 이후로 책방 할아버지는 그 학교 학생들뿐 아니라 선생님들까지도 이렇게 말하는 것을 계속 듣게 되었습니다. “데미안 말고 다미안 주세요.”



 정신세계사

존 패로우/김영호 옮김/값 3,800원 서점에 있습니다.
전화 733-3135(대)/팩시 739-8791 ■ 정신세계 전문서점 <책방 정신세계> 741-7033(통신판매도함)